

제36회
승대극회 봄 정기공연

한
여름
밤의 꿈



격려사



총장 김치선

학문과 연극예술 창조에 전념해 온 숭대극회가 제36회 봄 정기공연으로 그 동안 준비해온 세익스피어作 “한여름밤의 꿈”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일찌기 숭대극회는 순수 연극을 꾸준히 지향하여 왔고 연극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실재를 묘사하면서도 예술이라는 거대한 창조에 승화시켜 우리가 가진 학문을 표현해 보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서 젊은이의 확고한 신념과 패기로 열연할 극회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역사에 버금가는 참예술의 경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시는 글



극회장 박경근

푸르른 신록의 계절에 본 숭대극회가 제36회 정기공연 “한여름밤의 꿈”을 여러분 앞에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을 넘도록 이어온 숭대극회의 연극에 대한 순수한 몸짓과 열정이 작은 마음, 작은 땀방울로 하나가 되어 보잘것 없지만 소중한 열매를 맺어 이제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지난날들보다는 남은 날들이 많기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질타가 밑거름이 되어 더욱 더 알차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을 저희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과 학교관계자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 및 작품연구

이 「한여름밤의 꿈」은 최초의 낭만희극으로 공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완전히 교착 융화되는 작품으로 집필연대는 1595~6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극은 어떤 귀족의 결혼 축하연의 여흥용으로 제작된 듯하며 그 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논증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비교적 의견들이 좁혀지고 있다.

세익스피어의 극이 하나의 줄거리로 전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극은 네 개의 줄거리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는 하나의 줄거리의 틀 안에 세 개의 이야기가 평행하여 교착 전개된다고 볼 수도 있다. 아테네 공작 티시어스와 힐린리타와의 결혼이 그들이 되고 있다. 이 극은 결혼 나흘 전에 공작의 궁전에서 시작하여 결혼날 궁정에서 끝난다. 이 나흘동안에 아테네 교외의 숲에서 妖精의 王 내외 사이에 벌어지는 줄거리와 아테네의 네 명의 젊은 남녀의 사랑의 분규가 풀리고 두 쌍의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줄거리와, 그리고 공작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素人劇을 준비하는 줄거리가 교착 전개되어, 끝막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즉 공작의 결혼과 젊은 두 쌍의 결혼이 동시에 같이 거행되고, 그리고 요정들은 이 결혼들을 축복한다.

이제 여러 가지 주제의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종전의 거의 모든 수법을 한편에 담은 그의 최초의 위대한 회극 『한여름밤의 꿈』이 제작된 셈인데, 재료는 종전의 그것들이면서 그 구조는 전혀 판판이다. 아테네 공작 내외가 담당하는 틀 안에서 두 쌍의 애인들과, 그리고 요정의 세계가 무늬 놓아지며, 이것은 다 차오라는 주제를 가진다.

여기서 작가는 또 하나의 집념을 비로소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즉, 몽환과 현실이라는 개념, 외관 또는 假象과 實在를 이제 처음으로 대답하게 대조시키는 것이다. 이 두 요소의 대립이라는 명제는 이후의 극들, 특히 비극들의 내적 본질을 이루게 되는데, 이중 영상, 상식적인 인생관, 자연과 일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것과 表裏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외관과 실재는 이제 앞으로 교향악의 두 주제처럼 대위 음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 극의 진행을 비판하고 극의 분규를 원만하게 수습하는 티시어스 공작은 상식적인 두뇌의 소유자로서, 요정의 세계나 젊은 서정적 사랑을 부정한다.

그러나 공작 이외에 이 극에는 또 한 사람의 극히 상식적인 머리를 가진 인물이 있는데, 그는 저 유명한 광대 역의 보름이다. 그러나 그는 요정 세계의 여왕의 키스를 받아 그의 영역은 상상의 세계에까지 미친다. 원래 세익스피어적 상식은 티시어스 공작 같은 현실의 테두리 안에 제한시킬 수 없는 것이며, 현실과 상상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상식인 것이다.

기획의 변



기획
권형진 (무역2)



기획
이준석 (기계3)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무엇이 뭔지도 모르면서 갈구하며 달려온 50여 일의 여정, 돌이켜보면 새로운 추억이었습니다. 때로는 웃음과 즐거움으로 때로는 울음과 번민으로 지내온 날들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루어진 작품이고 미숙한 저희들이기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 만큼 애착이 큰 작품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연출 그리고 캐스트, 스탭진들 아울러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학교 교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저희 승대극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많은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STAFF



무대감독
임태웅 (산공4)



조명
송기범 (경영4)



의상
황금실 (국문3)



소품
노경신 (무역1)



무대장치
안선후 (심유3)



분장
류재연 (독문3)



홍보
김장우 (법학2)



진행
권태수 (경영1)



음향효과
류영록 (산공2)



무대미술
왕동미 (사사3)



섭외
이태상 (경제1)

연출의 변



연출
오정열 (사학3)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는
죄지은 자들처럼 시간에 쫓기며 산다.
그렇듯 쫓기다가 막다름에 서면
우리들은
곧히 잠들을 청하게 된다.
한여름 밤의 꿈,
지난 두달동안 같은 꿈들을 꾼다.
똑같은 꿈.
너와 나 그리고 우리들이
동시에 요정들의 장난에 놀아나 같은 꿈을 꾼다.
꿈깨면
전설의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웃음짓겠나.
오늘도.

CAST



킨스
박경근 (전자2)



보톰
이준석 (기계3)



디미트리어스
천승범 (화공2)



허어미아
박준희 (사사2)



헬레나
최정화 (무역2)



히페리타
김현순 (독문2)



김수진 (사학2)



꽁꽁
송미경 (독문2)



라이센더
홍덕태 (사학1)



티시어스
임경화 (화학1)



오베론
손 진 용 (산공1)



스너그
송 근 호 (기계1)



스나우트
이 계 복 (경영1)



플루트
박 중 호 (사자1)



이지어스
신 범 식 (무역1)



필러스트레이트
이 광 우 (철학1)



타이테니아
백 로 라 (국문1)



거자씨
조 영 화 (국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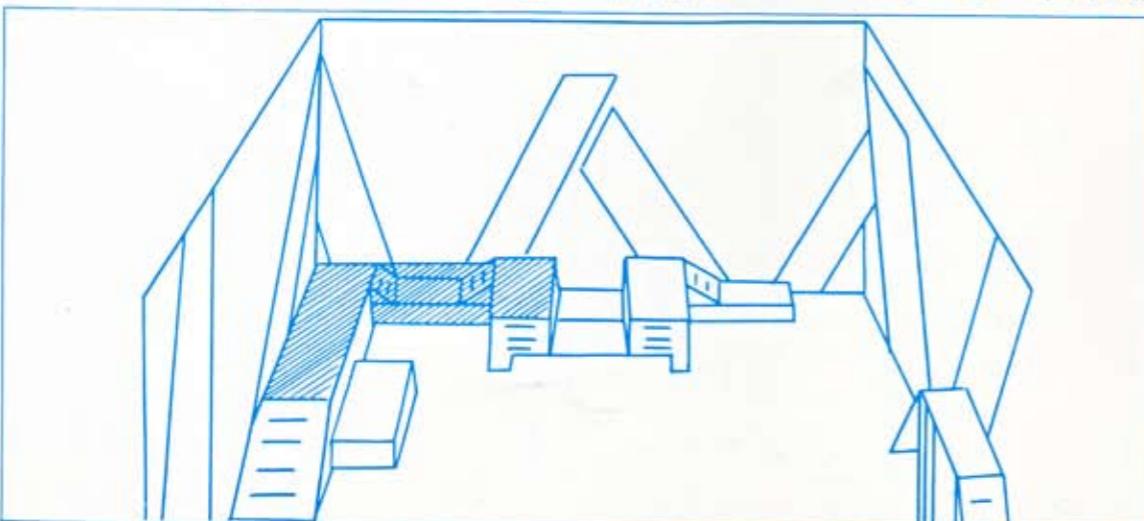
거미줄
박 혜 숙 (국문1)



극 광 기획

공연기획 무대조명·무대장치· 음향설비

기획부장 이 용 섭
887-1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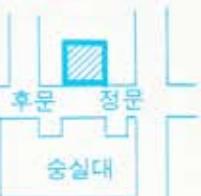
日 松 클럽

각종인쇄 · 사진제판

**266-2804
267-2281**

꼴 Café

그윽한 분위기와
낭만이 있는 곳



815-8694

그 옛날 무쇠솥의 밥맛이 그립습니다



술이라고 하면 요새 도시 사람들은 양은술이나 전기 밥솥을 빠울리게 되나 지난날에는 으레 무쇠솥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연탄 때지 않는 시절에 가면 더러 볼 수 있듯이 집집마다 부엌에 아궁이를 내고 투박한 무쇠솥을 있어 불을 때서 밥을 짓고 방도 닦히고 했습니다. 보기에도 묵직하고 투박한 이 무쇠솥은 솔바닥이 웃침을 한 듯이 물이 나고 끓이 슬지 않아 몇대를 물려 써도 끓여 없을 만큼 단단하였습니다. 또, 이 솥은 뚜껑이 무겁고 바닥이 두툼하여 솥 안의 온도와 압력이 한결같아서 밥이 고루 익고 밥알이 윤기가 자르르 흘러 밥맛이 부드럽고 향긋하였습니다. 옛 기록에도 “술 뚜껑이 빠들어져 있으면 김이 새어 나와서 밥맛이 없고 뱃값도 많이 들며, 밥은 반은 익고 반은 설게 된다”고 젓는 효령이 써어 있는 걸로 보아 밥맛은 솥에 따라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풍년 압력솥은 우리 조상들의 이런 삶의 지혜를 빙어 무쇠솥의 밥맛을 담았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높은 압력으로 밥을 치으므로 밥맛이 좋고 영양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구태여 쌀을 물에 이삼십분씩 담가 불리지 않아도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되며 여섯 사람 끓을 이십분 안에 해낼 수 있습니다. 결코 놀거나 타는 일이 없습니다. 현미나 잡곡을 섞어 밥을 짜울 때에 풍년 압력솥은 그 전가를 나타냅니다. 어느 솥이라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벼슬벼슬거리 맛이 없을 것을 풍년 압력솥은 이삼십분 안에 구수하고 차진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짜어 놓습니다. 식은 밥이라도 풍년 압력솥에 물 한컵을 끊고 짬판을 깔아 이분만 둘러십시오. 새로 짰은 밥처럼 고슬고슬하여 입맛을 돋구어 드릴 것입니다. 풍년 압력솥은 또 식품을 조리거나 씨거나, 탕 요리를 할 때에 아주 효과적이며 사용이 간편합니다. 시간이 절약됨은 말할 것도 없고 간이 고루 배어서 맛이 한결 좋습니다.

오늘부터 식구들의 건강은 가장 오래 되고 천봉있는 풍년 압력솥에 맡겨 주십시오. 그 옛날 무쇠솥의 밥맛을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세광일미늄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1-25 · 전화 677-1421~5 양업부(직) 677-1422

*서비스센터안내: 종로 762-8410, 영등포 633-0322, 강남 556-3262, 대구 755-7477, 부산 561-1706, 광주 524-2261, 대전 26-3023 (이터넷서비스대행점) ◉ 청주 : 일정시 2-7290 ◉ 광주 : 세관상회 56-1719 (사우성AK제작소) ◉ 인천 : 창진상회 3-1047 ◉ 수원 : 진영상회 5-8301, 파성전기 6-4990 ◉ 성남 : 부곡상회 2-3176 ◉ 광주 : 광진 2-2316 ◉ 의정부 : 한일상회 2-2268 ◉ 문산 : 청자유리 4-2340 ◉ 금촌 : 천원상회 2-2268 ◉ 전연 : 중앙전기 2-9406 ◉ 부산상사 : 2-2843 ◉ 대전 : 영진전자 253-4747 ◉ 광주 : 세진상회 42-7220 ◉ 대구 : 대원전기 44-7107 ◉ 마산 : 산일전자 2-7453 ◉ 대전 : 해나슈퍼 3-3000 ◉ 진주 : 진주전자 2-9117 ◉ 이리 : 금호전기 2-0633 ◉ 원천 : 신일상사 52-7686 ◉ 천주 : 대원전기 2-3756

공연연보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1	1921년 6 : 13	연희회 소인극 “설세양을 나불래옹의 막료” “대비극 노예의 탈”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	김영덕
	1923년 7 : 7, 21	전현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체인간” 영예청년회 주관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웨어作	김영덕
1	1965년 11 :	“조민연극” 교학생후원회 주관		4	1979년 3 : 29, 30	“제”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3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22	1979년 9 : 29, 10 : 2	“초분”	황정순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플라크作	박양진
5	1970년 5 : 15	“聖者の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양세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6	1970년 10 : 28, 29	“驕貴의 終末”	사우에·페레트作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作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날의 살화” “당대해독에 각해서”	정종화 윤명조作 안준·체홍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종作
		“황금단지” (로마극) “고도를 기다리며”	민근배 유근배 차현재 사우에·페레트作	26	1982년 6 : 12, 13	“마리끌라”	지숙
8	1971년 11 : 4, 5, 11	“서격병의 그림자”	산·오재이시作	27	1982년 10 : 7, 8	“해도우 박스”	황정순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펀터作	28	1983년 4 : 16, 17	“플랙로메디”	피터쇄퍼作 (신입생 환영)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 위렌마트作	29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김영덕
11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펀터作	30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기도” (소극장)	E. 아리엘作	31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5막)	A. 까페作	32	1984년 10 : 11, 12, 13	“번전소”	John Stoltenberg作
13	1975년 6 : 9, 10, 12, 13	“악마와 품”	W. Arving作 (신입생 환영)	33	1985년 5 : 9, 10, 11	“반민중”	Maxim Gorky
14	1975년 10 : 29, 30, 31	“파우티의 산책”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34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하승민
15	1976년 6 : 1, 2, 3	“비더만과 방화범”	Max. Frish作	35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파레스키作
16	1976년 10 : 25, 26, 27, 28	“보식과 여인”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36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릭·_ippen作
17	1977년 3 : 16, 17, 18	“인터뷰”	장·클로드·반·이엘리作	37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웨어作
18	1977년 6 : 15, 16, 17, 18	“행”	김영덕	38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作
		“출발”	윤대성作 (신입생 환영)	39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사르트르作 (신입생 환영)	박경근
		“EQUUS”	피터·웨어作				
		“EQUUS”	김영덕				



66

99

“창조와 도전만이
새로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사진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와 도장을 위한 불국의 의지와 지님으로 무하한 가는선이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 승인된다.

세계 과학기술사에 빛나는 밤자취를 남기 우리 선조들

—세계 과학기술사에 빛나는 혁신의 힘을 담은 우리 천소설—
은 그들과 끝까지 전철화된 그 복도의 타구장식이야말로 오는 80년대에 이어온 차

구글의 텁수상신이야기도 노
소중한 자식집 오시안느

대오는 끝이연이 새로운 축구계를 선조들이 염원한바와

나는 끊임없이 새도움을 주구해온 선조들의 얼을 이어받아 미래를 향하고자 기수리바위 위에 묵상하고자 한다.

